

그 때 그 사건을 아 시 나 요 ?

본고는 1960년대 이후 양계업이 태동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양계업계의 발전과 함께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을 월간양계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본 내용이다. 이번호에는 양계산물 홍보 및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을 게재 한다.

- 편집자주 -

닭고기·계란 요리강습회 최초 실시

1977년 9월 주부클럽이 주최하고 양계협회 및 삼일농장의 후원 아래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요리강습회가 양계산물 홍보와 소비자들의 유대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 동안 전국 양계관련 강습회는 사양관리 위주로 개최되어 왔으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양계산물 홍보는 처음이라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양계산물의 소비가 늘고 양계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1977년 11월호).

위생란 상표등록 출원, 이의제기로 취소

1987년 한국냉장(주)이 위생란 및 위생계란 상표등록을 취득하였으나, 생산자들은 그해 9월 9일 특허청과 농림수산부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농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최근 무항생제 계란이나 유기계란, 등급란, 각종 상품란 등 다양한 계란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브랜드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표등록은 새로운 트랜드로 등장 하고 있다. 이때의 사건은 다양한 상품란이 출현하여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전 경고였다고 볼 수 있다(1987년 10월호).

KBS TV 이상구 박사 축산물 소비위축 발언 파문

1989년 2월 KBS-TV는 국민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을 황금시간대에 방영하였는데, 이 프로에서 이상구 박사는 축산물 소비는 국민의 건강에 유해하고 오히려 야채가 더욱 좋다는 내용 등 축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발언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따라서 양계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9개 단체는 즉각 항의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1989년 3월호).



건강식생활 365일 ‘육과 육제품’ 팜플렛 내용에 강력 항의

1998년 대한양계협회는 한국육가공협회에서 발행한 건강식생활 365일 ‘육과 육제품’ 팜플렛 내용에서 콜레스테롤수치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계란에 대해 유독 노른자만의 수치를 기재하고 쇠고기는 살코기만의 콜레스테롤수치를 기재하여 계란 전체가 마치 콜레스테롤 덩어리인양 매도시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998년 8월호).



축산물 동물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고시

1990년 보사부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물질 기준을 12월 6일 고시하고 1년간 경과시간을 거쳐 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고시 내용에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호르몬 등 항생물질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물을 수거, 폐기하기로 하였다(1990년 1월호).



닭고기 홍보시 ‘적색육 암유발’ 신문광고 논란

대한양계협회와 육계계열기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를 5월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축산관련 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업계차원에서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일단락 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광고 내용에는 백색육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붉은 고기를 구워먹으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수록해 타 축종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 빌미를 제공하였다(1995년 12월호).



닭고기 유해물질 잔류검사 실시

항생제 사용이 늘고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1996년 7월 1일부터 닭고기에 대한 항생제와 합성항균제 등 닭고기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검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계란에 대해서도 항생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90년대 후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료, 도계장 등이 대부분 HACCP가 적용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양계장까지 HACCP이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996년 7월호). **양계**